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 취약차주 부채 분석

# 광주·전남 비은행권 대출 의존도 높다

## 가계부채 43조9천억 2015년 보다 22.2% ↑ 비은행금융권 대출 광주 64.7% 전남 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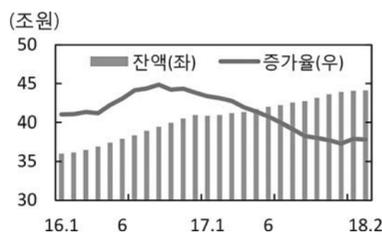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취약차주(고위험·고위험 개인사업자) 부채의 비중은 다른 경제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은행보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더 의존하고 있어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장서림 과장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취약차주 부채의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전남지역 가계부채 잔액은 43조9,000억원으로 2015년 말 대비 22.2%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6~2017년 중 타 경제권역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는 둔화된 양상이다. 특히 2017년 말 취약차주 부채의 비중은 다른 경제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고위험가구가 차주인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 권역보다 높은 8.7%에 달했다.

광역시별 고위험가구(다중채무자(3개 금융기관 이상)이면서 저소득(15단계 등급 중 11~15 등급) 또는 저신용(10단계 중 7~10등급) 비중은 광주가 8.2% 가장 높았고, 도별로는 전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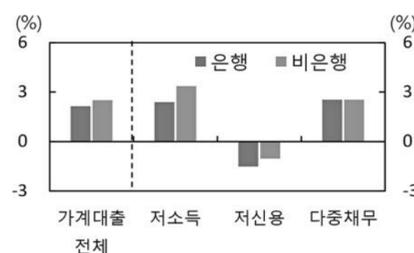
◇ 광주전남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율



9.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험 개인사업자(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차주인 대출도 전체 개인사업자대출의 7.3% 수준으로 타 권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광역시별로는 광주가 3.1%로 부산(3.6%)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

◇ 저소득 등의 가계대출 분기평균 증가율



별로는 전남은 4.3%로 전북(8.4%)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광주·전남지역 취약차주 대출의 증가세는 비취약차주 부채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

20%를 상회하던 고위험가구 대출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지난해부터 기

타가구의 대출증가율보다 낮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고, 고위험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도 최근 주춤하며 기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하회했다. 그러나 고위험가구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은행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지난해 말 고위험가구의 가계대출에

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권역별로 광주(64.7%)는 대구경북(72.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남(78.8%)지역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위험가구에게는 은행 대출 문턱이 높다보니 연 15% 내외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문을 어쩔 수 없이 두드리고 있다. 이렇다보니 고위험 개인사업자대출 비은행금융기관 대출 비중도 72.1%로 타 권역 평균(67.4%)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고위험가구의 경우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비은행금융기관 고금리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1년 내 만기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신용이 낮을수록 가산금리 상승폭이 클 가능성이 있고 고위험가구는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미에 기자



## 한전, 수출촉진회 1,622만달러 수출상담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장세창) 및 KOTRA(사장 권평오)와 함께 협력중소기업 10개사와 동남아시아 지역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촉진회를 개최해 큰 성과를 올렸다고 4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수출촉진회 기간 동안 전력 신기술 세미나를 열고 현지 바이어를 초청해 한전의 마이크로그리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감시제어시스템, DAS(Distribution Automation System) 배전자동화시스템 등 전력 신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한편,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기술과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출촉진회 참여 중소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수출촉진회 기간 동안 총 109건의 상담을 통해 1,622만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올렸다.

특히 영화산업전기(주)는 필리핀 4개 현지 바이어와 MOF(Metering Out Fit) 계기용 변압 변류기 300대에 대한 구체적인 수출협상을 진행하는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브랜드 역량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미에 기자

## 농협, 무안양파 비계약 물량 긴급수매

### 1만당 최고 9,000원...수익 발생 시 추가 정산

농협이 잦은 비와 고온으로 잎마름병이 확산되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지역 양파 재배농가 지원에 나선다.

4일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에 따르면 양파 전국 최대 주산지인 무안군 5개 농협조합장들은 전남 양파 산지가격 지지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농협 비계약 농가가 생산한 양파를 농협에서 수매하기로 결정했다.

수매대상 양파규격은 지름 7.5cm 이상 크기로 지역농협별 여건에 따라 상품 수

매가격은 품위별 kg당 450원(9,000원/20kg량)~350원(7,000원/20kg량) 선에서 차등 적용해 수매하고, 추후 판매에 따른 수익발생시 제비용을 차감한 일정액을 농가에게 추가정산하기로 했다.

주로 산지 중간유통상인과 거래하는 농협 비계약물량은 무안지역 전체 양파 재배면적의 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산지 양파가격은 중간유통인들의 발길이 끊겨 20kg량 기준 상품은 kg당 300~350원, 하품은 kg당 100~150원선

에서 일부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대비 반값이하로 크게 하락했다.

농협이 비계약물량을 수매하기로 하면서 향후 양파의 산지가격은 농협 수매가격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며, 농산물 제값받기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대표이사는 "앞으로 양파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미참여 농가가 생산한 물량에 대한 수매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미에 기자

## 한전KDN, IT인재 육성 광주 마이스터고와 MOU

한전KDN(사장 박성철)이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전KDN은 지난 1일 나주 분사에서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광주자동차설비공업고등학교와 IT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한전KDN과 마이스터고는 기업 맞춤형 IT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시설 공동 활용과 기

일시 2018. 6. 1(금) 14:00 | 한전KDN, KISSM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GSAT 광주자동차설비공업고



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IT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약속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일원

으로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소프트웨어 교육강사 양성 과정 운영과 지역사회 꿈나무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미에 기자

## aT, 농식품 일자리 콘테스트

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최근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식품 분야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 간 강점을 활용한 협업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농식품부 산하 등 공공기관 13개 기관이 참석, ▲기관별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BP) 발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업 토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업' 토론을 통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예로 사항 청취 및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공공일자리 창출 사례 공유' 토론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차별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했다.

이병호 aT 사장은 "농식품 분야 각 기관별 수행되는 일자리 사업을 국민 및 수요자에게 이번 일자리 콘테스트와 같은 행사를 통해 널리 알려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이번 행사와 같이 기관 간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질 좋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1억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 "전체"수리 했습니다

